

# '애기동백 매력' 신안군 섬 겨울꽃축제 2만3000명 몰렸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 1월 1일까지 1004섬 분재정원

오는 2월까지 피고 지기 반복하며 방문객 맞이할 예정

신안군은 지난 2023년 12월 8일부터 올 1월 1일까지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에서 열린 '섬 겨울꽃 축제'에 2만 3000여 명의 방문객이 찾았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1004섬 분재정원을 찾은 총방문객 수는 15만 명으로, 12월부

터 2월까지 겨울철에만 7만여 명이 방문해 겨울 정원의 인기를 입증했다. 2009년 문을 연 분재정원의 누적 방문객 수는 174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1004섬 분재정원은 겨울철 애기동백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

면서 신안군의 겨울철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안군의 섬 겨울꽃 축제는 막을 내렸으나 분재정원 애기동백꽃은 오는 2월까지 피고 지기를 반복하며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혹한과 폭설 속에서도 축제를 찾아준 관람객에게 감사하다"면서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볼거리로 관람객들에게 따스한 겨울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택주 기자



## 영암이 혁신창작소, 영암군민이 혁신디자이너

영암군, '2024년 신년하례회' 열고 새해 인사와 덕담 나누



영암군이 5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영암군민회관에서 기관사회단체장과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날 하례회는 신년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서 희망찬 새해를 함께 설계하는 장.

먼저, 식전 가야금 공연으로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영암지회의 김다희·김효빈 씨가 행사장의 분위기를 달궜다.

본 행사에서는 우승희 영암군수를 포함해 영암군의회의원, 기관장, 기업인, 사회단체장 등 내빈 소개가 이어졌다.

소개 받은 참석자들은 서로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건네며 새해를 축하하는 하례를 나눴다.

이어 우승희 영암군수는 신년사로 올 한 해 영암의 혁신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갑진년 새해에는 민선 8기 지역사회 전반에 뿌린 혁신 영암의 씨앗을 튼튼한 묘목과 아름다운나무로 키워내겠다"며 "지금, 여기가 혁신창작소이고, 영암군민 모두가 혁신디자이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주요내빈 신년 덕담, 소원 종이비행기 날리기, 고흥사랑기부 세례모니가 차례로 진행됐다.

영암=조태호 기자

## 영광군, '국가유공자 명예 수당' 대폭 확대

영광군은 2024년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 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로운 노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할 예정이다.군은 지난해 12월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국가유공자 수당을 증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 보훈명예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인상수당은 현재 군에서 보훈수당을 받는 사람이라면 추가 신청 없이 지급되며, 신규 명예 수당 대상자 신청은 거주지 읍면으로 신청한 당월부터 지급 받게 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 무안군,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대상자 모집

무안군은 오는 1월 28일부터 2월 7일까지 2024년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 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다.

창업자금에 대상자당 3억 원 이내, 주택마련 자금은 세대 당 7,500만 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 1.5%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최종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2024년 기준 만65세(1958.1.1. 이후 출생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안군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갖추고 무안군 해양수산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무안=이성기 기자

## 함평군가족센터, 영유아기 부모 역할지원 교육 실시



함평군가족센터(센터장 김기영)는 2월부터 12월까지 14회기에 걸쳐 총 284명 참여, 영유아기 부모 역할지원 교육 '함평의 미래를 키우는 부모교실, 부모와 함께 하는 놀이 체육' 프

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영유아기 부모·자녀와의 애착 관계 향상 및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기울인 결과 정부합동평가 정성지표 가족서비스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적 한계와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욕구를 반영하여 부모교육 환경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결과이다.

상반기에는 영유아의 건전한 스마트 미디어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8개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부모교육으로 확대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부모와 함께하는 영유아기 자녀 놀이 체육을 추진하여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가족센터는 다양한 전문교육과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행복한 아이, 성장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예정이다. 더불어 영유아기 부모 역할지원 교육을 통해 가족관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모 역량 강화 및 긍정적 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함평=김광준 기자

## 목포시, (가칭)한국나전철기 박물관 건립 공청회

목포시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목포 자연사 박물관에서 (가칭)한국나전철기 박물관 건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시민들에게 나전철기 박물관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 및 구상을 설명하고 박물관의 위치, 규모, 운영, 활용 방안 등 박물관 건립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를 시작으로,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발전 방안에 관한 지정 토론자 4명의 주제 발표,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 참석을 원하는 목포시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